

〈제 730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광주은행, ‘金도 사고 金고도 받go’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 '金도 사고 金고도 받g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매매중인 한국조폐공사의 오롯 골드바를 500g 이상 매입과 매도한 개인고객 중 마케팅 동의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는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매매 가능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래(매매)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금값 상승의 영향으로 골드바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한동안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광주은행을 통해 '金도 사고 金고도 받go'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은행

◆광주은행,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무료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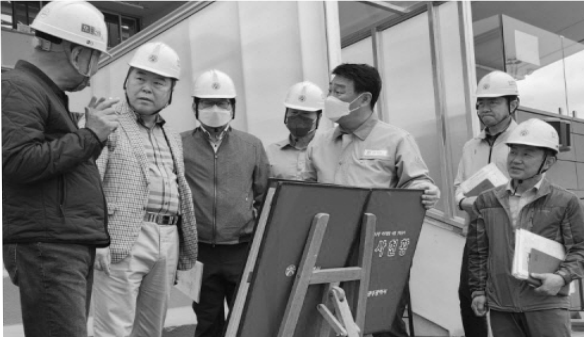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활을 위해 마이데이터 최초 가입 고객에게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전남 지역내 디지털 환경 격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디지털환경이 낮설고 불안한 시니어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에게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에이스 손해보험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보험료는 광주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이용고객들에게 사이버 금융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예정이며, 광주은행만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공공체육시설 방문 현장점검



광주시체육회(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가 11일 시체육회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체육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시설 점검은 최근 시설물 공사 중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비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파악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다. 시체육회는 코로나19가 엔데믹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체육시설 활성화에 주력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과 선수를 위한 공간이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항상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 개선하고 수요자를 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주)AutoLand광주

◆경기 어렵다지만, 기아차 "잘 나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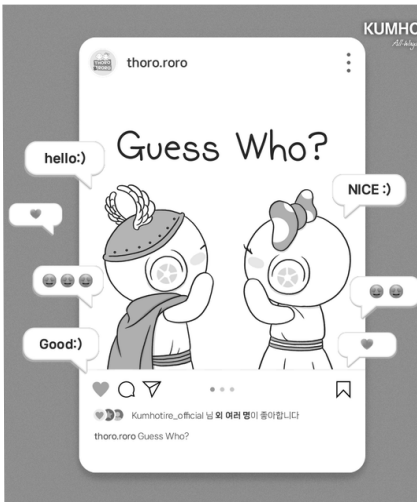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핵심인 '기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도 10%이상 늘어나는 등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아오토랜드광주(이하 광주공장) 생산량도 전년 보다 30%이상 급증했다. 광주공장의 생산량 증가는 수출 증가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협력

업체의 납품 물량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아는 "코로나 이후 그동안 잠재돼왔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다"며 "현재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현상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생산 물량의 증가와 함께 공급 확대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타이어의 신 '또로' 활약상 시리즈로 선보인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가 업계 최초로 또로, 로로의 성장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낸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인다. 자사 대표 캐릭터인 또로, 로로를 활용해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해당 인스타툰은 글로벌 콘텐츠로 제작돼 세계 곳곳에서 공개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소재를 기반으로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MZ세대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금호타이어의 캐릭터인 또로, 로로를 활용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MZ세대를 겨냥해 캐릭터 ‘또로로로’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며 트렌드 리딩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남화산업

◆남화산업(주) 무안컨트리클럽, 전남7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남화산업(주)(최재훈 회장)이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남화산업(주) 무안컨트리클럽은 전남에서 7번째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남화산업(주)(최재훈 회장)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원

◆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



(주)호원(양승빈 전무)은 자체 부품의 탄탄한 기술력을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전무는 “경량화 소재를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및 기술력을 확보 중에 있다”며 “특히 산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R&D역량을 집중해 저비용 · 고효율 · 고안전의 플랫폼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 및 기술을 전세계에 내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원(양승빈 전무)은 “끊임없는 기술력 강화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매출과 수출을 견인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호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아동복지시설원생에게 '문화+뷔페'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강영철 총지배인)은 최근 광주 동구의 아동복지시설 일맥원 어린이들을 초대해 예술작품 관람과 저녁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호텔 임직원 및 일맥원 관계자 12명과 일맥원 어린이 8명이 참석했다. 초대된 어린이들은 호텔에 전시된 세계적인 작가, 국내 현대미술 대표 작가와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

들로 구성된 미술관급 아트 컬렉션을 관람하는 등 문화를 체험한 후 호텔 뷔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강영철 총지배인)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호텔의 EGS경영 비전과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여행을 선도하는 호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00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강사 : 최진석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선도국가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똑같은 불황 속에서도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똑같은 호황 속에서도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고생 합니다. 생각이 차이를 만들고, 결국은 마음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 철학, 사상을 만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빌려다 쓰고, 수입해서 씁니다. 어떤 의식을 가졌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가 무엇인가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무엇인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또 과거를 살 것인가 미래를 살 것인가 동네 현자로 살 것인가 우주의 현자로 살 것인가 몇 사람의 박수로 흥분하며 살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의 박수를 받을 것인가 모든 것을 마음이 결정합니다.

물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태어나는 좋은 길이 있어야 물건이 태어납니다. 물건이 돌아다니는 좋은 길이 있어야 좋은 물건이 태어납니다. 좋은 길 이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좋은 제도는 또 좋은 철학이 있어야 좋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물건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제도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중진국입니다. 사상 가치에 집중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고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대한민국은 아직 제도적인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사상 논쟁, 철학 논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한 건 활자, MP3 등 몇 가지 외우리가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물건을 먼저 만듭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은 주자학이 망해 먹었다. 하지만 주자학을 근거로 송나라, 명나라는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조선의 비효율은 주자학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이 생각이 없었던 데에 두지 않고 항상 남 탓을 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자학만 아니었으면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이데올로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로 바뀌고 주자학으로 관리하면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니까 양명학을 만듭니다. 조선은 1392년에 주자학을 받아들여서 200년 동안 어떻게 주자학을 한점 흠결도 없이 그대로 순결하게 하는지 그것만 가지고 200년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부산을 거쳐 걸어서 한양까지 올라갑니다. 또 종이 한 장으로 한일 합방이 됩니다. 사회 경제적 조건, 세계가 달라져도 이데올로기를 200년 동안 지키니까 달라진 세계와 그 세계를 관리하는 이데올로기 사이에 갭이 점점 커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진국 상위레벨에 올라왔습니다. 중진국에 올라선 나라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II. 광주경충 소식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가 없습니다. 중진국 상위 레벨까지 도달한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운이 좋습니다. 중진국 상위 레벨에 가장 늦게 도달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선도 국가의 꿈, 독립 국가의 꿈, 자유 국가의 꿈, 전략 국가의 꿈을 이룰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국민이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생각이 하나의 녹지 하나의 질서를 갖는 걸 우리는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입니다.



33년간 금요일 아침을 깨운 광주경총...금요조찬포럼 1600회 돌파

2023년 04월 12일(수) 19:05



가 가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국내 최장수 포럼인 ‘금요조찬포럼’이 오는 14일 1600회를 맞는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4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160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 회를 시작한 이후 지난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됐다. 금요조찬 포럼은 기업 CEO 등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경제와 경영부터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 기업 CEO 등 경제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0년 11월 27일 금요조찬포럼 30주년 및 1500회 개최라는 기록을 달성,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았다. 그만큼 전국적으로도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명품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요조찬포럼은 저렴한 비용으로 매주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세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데다, 각계 분야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광주경총은 이번 1600회 기념 금요조찬포럼에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를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통찰을 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진석 회장은 “금요조찬포럼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왔다”며 “금요조찬포럼이 1600회를 이어올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 지역민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광주 대표 경제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최근 양진석 회장이 취임한 뒤 회원사가 급증함에 따라 참석자도 15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원사나 조찬포럼 연간회원은 무료로 청강할 수 있으며, 비회원사를 비롯한 지역민 누구나 당회 2만원의 참가비를 내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1. 경제 동향

◆ IMF, 「2023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4.11)

- IMF는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으며, 2024년은 3.0%로 전망
 - ※ '23년 경제성장률은 '23.1월 전망(2.9%)대비 0.1%p 하향 조정됐고, '24년 경제성장률은 '23.1월 전망(3.1%)대비 0.1%p 하향 조정
 - ※ IMF는 세계경제 중기성장률(5년뒤 성장률)을 3.0%로 전망. 이는 IMF 세계경제전망(WEO)이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최저치
- IMF는 올해 세계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과정(A Rocky Recovery)으로 평가하며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등 불안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 · 크레딧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냄.
- 이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공 · 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
- IMF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함.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촉구.
-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 1.5%, 2024년 2.4%로 전망
 - ※ '23.1월 전망 대비 2023년은 0.2%p 하향 조정, 2024년은 0.2%p 하향 조정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4.11)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 한국은행은 2022년 1월(1.25%), 4월(1.50%), 5월(1.75%), 7월(2.25%), 8월(2.50%), 10월(3.00%), 11월(3.25%) 일곱 차례, 2023년 1월(3.50%) 한 차례 인상하였으나, 2월과 4월에는 동결 결정

Ⅲ. 노동경제동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 「2023년 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4.7)

- 2023년 2월 경상수지는 5.2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58.7억달러 흑자) 대비 경상수지 규모는 63.9억 달러 감소
 - ※ 경상수지는 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음.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16.3('22.10)→ △2.2(11)→ 26.8(12)→ △42.1('23.1)→ △5.2(2)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 43.5억달러 흑자에서 13.0억달러 적자로 전환
- 서비스수지는 전년동월 0.9억달러 흑자에서 20.3억달러 적자로 전환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31.2억달러 흑자 기록
- 이전소득수지는 3.1억달러 적자 시현
- 2023년 2월 금융계정은 11.9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 (4.6)

- 20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3.8억달러로 전년동기(46.8억달러)대비 27.7% 감소(도착 기준)

Ⅲ. 노동경제동향

※ 최근 5년('19~'23)간 1분기 FDI 실적 추이(억달러, 도착기준)

: 30.3('19.1q)→ 29.8('20.1q)→ 44.7('21.1q)→ 46.8('22.1q)→ 33.8('23.1q)

- 제조업 FDI 규모는 1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2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감소

○ 국가별로는 EU*, 일본 등에서 FDI가 증가, 미국, 중화권** 등에서는 FDI가 감소 (도착 기준)

* EU는 영국을 포함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 EU에서 오는 FDI 규모는 13.0억달러(전년동기대비 21.3% 증가), 일본은 3.9억달러(20.5%)를 기록. 반면, 미국에서 오는 FDI 규모는 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8.0% 감소했고, 중화권은 3.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6% 감소

◆ 통계청, 「2023년 3월 고용동향」 발표 (4.12)

○ 2023년 3월 취업자는 2,82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1.7%)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 2022년 6월 이후 감소하던 취업자 증가폭(전년동월비)은 10개월 만에 반등.

- **(산업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 6천명), 숙박및음식점업(17만 7천명), 정보통신업(6만 5천명) 등의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도매 및 소매업(△6만 6천명), 제조업(△4만 9천명), 건설업(△2만명) 등의 취업자는 감소

※ 도매 및 소매업은 2019년 6월(△4만명) 이후 46개월 연속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54만 7천명), 50대(5만명), 30대(2만 4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8만 6천명), 40대(△6만 3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8.7%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Ⅲ. 노동경제동향

- 실업자는 8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3.8%) 감소
 -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7.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전체 체감실업률*은 9.4%로 전년동월대비 2.1%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7.8%로 전년동월대비 2.3%p 하락
 -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3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8천명(△1.7%)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14.5%)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증가한 241만 6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6천명 감소한 33만 8천명 기록

◆ 한국은행, 「2023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4.13)

- 2023년 3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2.0% 상승(전년동월대비 6.4% 하락)
 -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270.74(2월)→ 1,305.73(3월) [전월대비 2.8% 상승]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2.3% 하락(전년동월대비 6.6% 하락)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렸으나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2.0% 상승(전년동월대비 6.4% 하락)
- 2023년 3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0.8% 상승(전년동월대비 6.9% 하락)
 - * 두바이유가(월평균, 달러/bbl) : 82.11(2월)→ 78.51(3월) [전월대비 4.4% 하락]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1% 하락(전년동월대비 14.5% 하락)

Ⅲ. 노동경제동향

- **(중간재)**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6% 상승(전년동월대비 5.4% 하락)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2.3% 상승했고, 소비재는 전월대비 1.7% 상승(자본재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소비재 2.0% 상승)

2. 노사 동향

◆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개혁 추진 동력 확보에 주력

- 고용부가 4. 7 부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정식 장관은 4. 10「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개혁 추진 주문

* 고용부는 지난 2. 1부터 조합원 천명 이상의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52개 노조(점검대상의 16.4%)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고용부는 4월 셋째주부터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노조의 물리력 행사가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

- 대통령은 고용부의「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앞서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법치 확립이고,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

- 이정식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편법과 불법을 유발하는 제도를 다듬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

- 여당은「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노동개혁 추진 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 11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춰선 안되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노동개혁 특위를 발족한다”고 발표

- 또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4. 3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절차 규정, ▲노조 결산보고서 등의 운영·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 발표

- 한편, 양 노총은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 진행을 놓고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Ⅲ. 노동경제동향

* 한국노총 소속 8개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37개 노조가 고용부에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 양 노총은 지난 3. 21 이정식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공동 고발했으며,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법률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

[참고]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및 장시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계획

구분	주요 내용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신고센터」 신고 사업장 즉시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기간 : 2023. 4. 7 5월말 - 감독 내용 : ①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② 장시간 근로, ③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등 ▪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업종 대상 근로감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시기 : 2023년 하반기 - 감독 대상 :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제기가 잦은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업 등
장시간근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 높은 근로감독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IT 업종 등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근로시간 기록·관리, 연장근로, 휴가사용 등 중점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미관리 편법 운영 등 포괄임금 현황, 연차 사용 실태 조사 병행 ▪ 근로감독 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휴가 관련 법 위반 발생 사업장, 포괄임금 관련 중점 점검사항 위반 사업장은 차년도에 재감독 실시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 한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 위반 사업장은 시정지시 및 확인감독 3개월 후 재점검 실시